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이종국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선출방법 결정

제9대 안수집사 60명, 제37대 권사 70명 선출기로

3월 19일(주일), IV부 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투표

교회는 3월 19일 제9대 안수집사 60명과 제37대 권사 70명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교인의 증가와 각 업무의 세분화, 전문화 등으로 각 부문의 일을 헌신적으로 담당할 일꾼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지난 주일(3월 5일) IV부 예배 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선거를 위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을 당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고, 이 결정에 따라 당회는 지난 3월 8일(수) 임시당회를 열어 안수집사 후보자 60명과 권사 후보자 70명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온 교우

들은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일꾼이 누구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여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3월 19일 투표에는 등록 세례교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안수집사는 유효투표수의 삼분의 이의 득표를, 권사는 중다수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출되는 안수집사 피택자와 권사 피택자들은 4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별교육을 받고 당회에서 실시하는 고시와 면접을 거친 후 10월 17일에 장립식 및 취임식을 갖게 된다.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6면 참조)

전국 여교역자, 사모 부흥회

3월 13일(월) 저녁부터 ~ 3월 16일(목) 저녁까지

충현기도원에서는 오는 3월 13일(월) 저녁부터 3월 16일(목) 저녁까지 여교역자 및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흥회를 실시한다.

여교역자 및 내조하는 사모를 대상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되는 부흥회 기간중 새벽 5시 30분에 새벽기도회, 오전 10시 30분 특

강, 저녁 8시 부흥회로 진행된다. 전국의 여교역자 및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부흥회의 숙박은 무료이다.

강사로는 김창인 원로목사, 최재선 박사(중앙대 교수, 중대기독교학생회 지도), 이진숙 사모(작가, 신성중 목사 사모), 홍관옥 박사(수도침신대학, 중앙대 강사)이다.

가브리엘찬양대 반주자/백금옥 집사
파이프오르간 독주회

우리 교회 가브리엘찬양대(1부 예배) 반주자인 백금옥 집사가 3월 13일(월)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파이프오르간 독주회를 갖는다.

백 집사는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쾰른 국립음악대학을 졸업하였고 그동안 국내외에서 여러차례의 오르간독주회를 가진 중견 연주자로 현재는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오르가니스트협회 편집이사이다.

백 집사는 오랫동안 우리 교회의 찬양대 반주를 맡아 성실하게 봉사해왔다.

제4회
예수사랑큰잔치를
준비하자

정확하고 바른 태신자카드 작성이 급선무

제4회 예수사랑큰잔치 일정이 확정됐다. 6월 6일부터 11일까지를 예수사랑큰잔치 기간으로 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전도는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기에 각 교구와 개인들은 태신자 작성에 신경을 쓸 때이다. 태신자를 정하고 꾸준히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날(3/13)	둘째날(3/14)	셋째날(3/15)	넷째날(3/16)
	새벽기도회(05:30~06:30) <최재선 박사·김용기 목사>		
	아침식사(7:30~8:30)		
10:30	특강(1)/이진숙사모 교회 부흥과 사모의 역할	특강(2)/홍관옥박사 그리스도인의 내적 치유	특강(3)/최재선 박사 영성있는 지도자
	저녁식사(18:00~19:00)		
	찬양의 시간(19:30~20:00) (인도: 임태주·오인숙 전도사)		
개강예배 김창인 목사	저녁부흥회(20:00~21:30) (인도: 최재선 박사~여성 사명자 영성회복)		

금주의 교회행사

1.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

3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6교구가 계속

지난 2월 6일 시작한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를 금주에는 3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6교구가 시작한다. 5교구는 3월 13일 오전 9시까지이다.

2. 교회주변 지역 집중전도

3월 14~16일(화, 수, 목)
여전도회 회장단은 필히 참석
교회 주변 1·2·3교구 집중전도를 실시한다. 3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갈릴리홀에 모여 1시간 동안 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고 11시부터 1·2·3교구 각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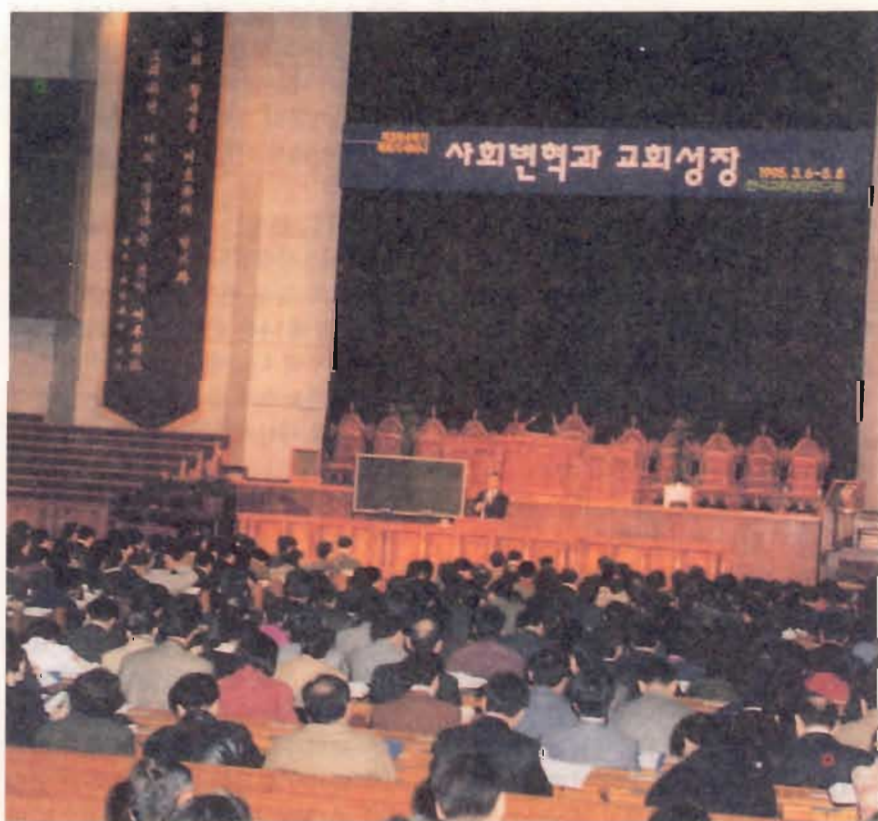
전도회 회장의 안내를 받아 할당된 전도지역에서 전도하게 된다.

모든 여전도회 회장단(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부서기, 부회계)은 필히 참가하여 모범을 보일뿐 아니라 교회주변 지역전도에 힘을 내야 할 것이다.

3. 장학금 전달식

오늘 찬양예배후, 본당
1995년도 상반기 장학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해당자는 참석하여 장학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목회자세미나 개강

제3회 4학기 목회자세미나가 '사회변혁과 교회성장'이란 주제로 지난 3월 6일 개강했다. 매주 월요일 모이는 이 세미나는 5월 8일까지 10주 동안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그후에는 4시 20분까지 특별강사에 의한 특강으로 진행된다. 매 학기마다 성령을 이루는 중에 진행되는 세미나는 이번 학기에도 800여명이 참석하였다.



충현강단

● 요한계시록 강해 27 ●

여인과 용

(계 12:1-6)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장에만도 다섯 번에 걸쳐서(1, 3, 7, 8, 10절) "하늘에"라는 말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요즘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1. 하늘의 큰 이적

(1) 여자가 누구입니까?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고 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해는 태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이 여자에 대해서는 성모 마리아라는 견해와 육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는 견해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저는 세번째 견해가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여인으로 비유했습니까? 그것은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므로 남편들이 아내를 깨지지 않도록 잘 돌보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벧전 3:7). 또 한 가지 이유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육동자를 가지듯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영혼들을 얻고, 점점 성장하여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라고 보는 것이 순리입니다.

(2) 여자의 네 가지 모습

첫째로 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영광과 은총이 넘쳤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둘째로 달이 그 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달과 해는 항상 대조적입니다. 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달은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항상 승리할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열두 별로 만든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주의 사자, 주의 종들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문에 보면 여기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승리자가 쓰는 면류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그러나 여인에게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여자들이 해산하지 않고는 애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육동자는 이런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이처럼 아벨 이후 구약 교회는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물론 이것

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 하늘의 다른 이적

(1) 붉은 용의 모습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붉은 용, 붉으니까 이것은 빨갱이들이구나 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과연 이 붉은 용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머리가 일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의 편을 드는 일곱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 국가 여섯 개가 나옵니다. 애굽, 앗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장차 올 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모릅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장차 올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열 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열 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구라파 공동체, 즉 EU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열 국가들은 사탄에게 속해있고,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들을 핍박하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 뿔이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이들을 빨로, 또는 머리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머리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고 뿔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국가들의 초월적인 지혜와 놀라운 힘을 상징해서 이렇게 머리와 빨로 표현했습니다.

넷째로 문제는 용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붉은 용의 일곱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이 면류관은 앞에 나온 면류관(스테파노스)과 다른 단어 즉 디아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노스가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인데 비해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다섯째로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꼬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7년 대환난중 마지막 부분이 돌아오면 많은 교역자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활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장면을 부분적으로 이미 벌써 볼 수가 있습니다.

(2) 붉은 용의 정체

9절에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노아시대에는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듯이 오늘날 말세의 교회에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반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품 안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천하를 쫓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큰 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옛뱀이라고 뱀알에 옛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이기 때문에 옛뱀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단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어입니다. 사타나, 사탄. 그것을 우리말로 사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라합(사51:9), 리워야단(악사74:13-14), 하마(욥40:15-24), 뱀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로서 온 천하를 쫓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집어넣고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유혹해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본래는 천사였지만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결국 쫓겨났습니다.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있고 이 사탄 마귀를 보좌하는 수많은 악령의 세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함께 쫓겨서 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기도하기를 중단하거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에는 너, 나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광야로 도망간 여자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리기 위하여"고 했습니다. 여기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 이백 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피난을 간 경우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광야로 도망을 갔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으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생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즉 삼년 반동안 적그리스도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삼각산도 아니고 충남의 계룡산도 물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요새도 아닙니다.

노아시대에는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듯이 오늘날 말세의 교회에 있어서는 예수님만이 반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품 안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디에 가서 숨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도록 만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애기를 낳을 때 그냥 쉽게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기를 갖게 될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그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딥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게 될 때에 육동자를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과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예비하신 광야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신 손길은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9대 안수집사 후보 명단



성명	이부성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영어교육부 부감
번호	1



성명	정청길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새가족위 교사
번호	2



성명	허명호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차량관리부
번호	3



성명	엄균영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예배위 안내위원
번호	4



성명	정재모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청년2부 교사
번호	5



성명	김차철
나이	4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교회 사무국
번호	6



성명	박병택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번호	7



성명	이승계
나이	4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고등부 교사 실로암찬양대원
번호	8



성명	박창식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차량관리부
번호	9



성명	김영달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중등3부 교사 가브리엘찬양대원
번호	10



성명	진학래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장년2부 교사
번호	11



성명	신상수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청년2부 교사
번호	12



성명	손기현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차량관리부
번호	13



성명	함철주
나이	46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사랑부교사
번호	14



성명	배춘식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새가정부 교사
번호	15



성명	유상태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새가족위 교사
번호	16



성명	이인광
나이	4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중등3부 교사
번호	17



성명	안희정
나이	4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실로암찬양대원
번호	18



성명	정채명
나이	46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교구 간사
번호	19



성명	정래부
나이	49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가브리엘찬양대원
번호	20



성명	김영록
나이	46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장년1부 교사
번호	21



성명	김창국
나이	4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중등1부 교사
번호	22



성명	오동환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번호	23



성명	정선현
나이	4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가브리엘찬양대원
번호	24



성명	장충군
나이	4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영어교육부 교사
번호	25



성명	유성남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교회 사무국
번호	26



성명	김달현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새가족위 교사
번호	27



성명	양승길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지역장(대행)
번호	28



성명	김경환
나이	4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아멘찬양대원
번호	29



성명	박용기
나이	4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중등3부 교사
번호	30



성명	윤상언
나이	48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교회 사무국
번호	31



성명	유국현
나이	4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가브리엘찬양대원
번호	32



성명 **이 성 섭**
나이 4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고등부 교사
번호 33



성명 **차 기 풍**
나이 48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차량관리부
번호 34



성명 **조 종 환**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사랑부 교사
번호 35



성명 **박 호 용**
나이 46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장년3부 교사
번호 36



성명 **이 병 석**
나이 4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중등2부 교사
번호 37



성명 **박 종 규**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청년2부 교사
번호 38



성명 **박 상 대**
나이 4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고등부 교사
번호 39



성명 **김 중 선**
나이 4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사랑부 교사
번호 40



성명 **강 영 철**
나이 4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교회 기획실
번호 41



성명 **고 제 승**
나이 48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새가족위 교사
번호 42



성명 **이 덕 규**
나이 49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번호 43



성명 **이 달 옥**
나이 49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새가족위 교사
번호 44



성명 **신 광 철**
나이 4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중등2부 교사
번호 45



성명 **조 흥 진**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소망부 교사
번호 46



성명 **전 은 배**
나이 4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새가족위 교사
번호 47



성명 **김 정 필**
나이 4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고등부 교사
번호 48



성명 **정 재 복**
나이 4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초등6부 교사
번호 49



성명 **박 승 길**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새가족위 교사
번호 50



성명 **이 흥 우**
나이 4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교구간사
번호 51



성명 **정 인 선**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실로암찬양대원
번호 52



성명 **양 병 진**
나이 4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초등3부 교사
번호 53



성명 **석 영 식**
나이 4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번호 54



성명 **남 용 승**
나이 4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베드로전도회
번호 55



성명 **한 광 조**
나이 4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중등2부 교사
번호 56



성명 **조 형 수**
나이 4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아멘찬양대원
번호 57



성명 **허 오**
나이 4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유아부 교사
번호 58



성명 **조 증 광**
나이 4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장년1부 교사
번호 59



성명 **김 형 철**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교회 사무국
번호 60

이 명단은 당회의 후보자 추천 득표순입니다.

제37대 권사 후보 명단



성명 **김현옥**
나이 6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장년2부 교사

번호 1



성명 **한숙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5



성명 **김미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9



성명 **문경희**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13



성명 **민병란**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17



성명 **은필례**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21



성명 **최현숙**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25



성명 **구인숙**
나이 5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예배위 안내위원

번호 29



성명 **안숙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에스더전도회

번호 33



성명 **최규**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중등3부 부감

번호 2



성명 **김호정**
나이 6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새가족위 교사

번호 6



성명 **조옥환**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중등1부 부감

번호 10



성명 **안태숙**
나이 5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청년2부 교사

번호 14



성명 **조분자**
나이 5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장년2부 교사

번호 18



성명 **방소애**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아멘찬양대원

번호 22



성명 **박영여**
나이 6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한나전도회

번호 26



성명 **안정자**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30



성명 **박점순**
나이 58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새가족위 교사

번호 34



성명 **강동화**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아멘찬양대원

번호 3



성명 **최태욱**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청년2부 교사

번호 7



성명 **장명숙**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사랑부 교사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11



성명 **김옥님**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15



성명 **이명자**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탁아부 교사

번호 19



성명 **왕진숙**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예배위 안내위원

번호 23



성명 **이원화**
나이 6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소망부 교사

번호 27



성명 **유일욱**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31



성명 **박태순**
나이 64
직분 전 권사
봉사 부서 구역장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35



성명 **이소현**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4



성명 **연화숙**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가브리엘찬양대원

번호 8



성명 **최하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초등3부 부감

번호 12



성명 **유성자**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16



성명 **손숙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20



성명 **최영득**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새가족위 교사

번호 24



성명 **조영자**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28



성명 **강영자**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권찰
탁아부 교사

번호 32



성명 **양명자**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장년1부 교사

번호 36

	성명	안정선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37	

	성명	여신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고등부 교사
번호	38	

	성명	박부미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에바다부 교사
번호	39	

	성명	김순자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40	

	성명	최선옥
	나이	6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장년3부 교사
번호	41	

	성명	김숙자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탁아부 교사
번호	42	

	성명	마정옥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43	

	성명	최정심
	나이	59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권찰
번호	44	

	성명	김영아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45	

	성명	김명주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고등부 교사
번호	46	

	성명	손순자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중등1부 교사
번호	47	

	성명	유재준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48	

	성명	김경애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49	

	성명	김인단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50	

	성명	조자순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51	

	성명	강석란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52	

	성명	강정일
	나이	56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탁아부 교사
번호	53	

	성명	김경자
	나이	6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54	

	성명	변옥희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권찰
번호	55	

	성명	장옥순
	나이	5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아멘찬양대원
번호	56	

	성명	김정희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57	

	성명	박춘옥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58	

	성명	임용재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59	

	성명	윤정희
	나이	6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60	

	성명	설복연
	나이	5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호산나찬양대원
번호	61	

	성명	안숙자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탁아부 교사
번호	62	

	성명	조향순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63	

	성명	김연옥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초등1부 교사
번호	64	

	성명	이혁자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새가족위 교사
번호	65	

	성명	김성자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새가족위 교사
번호	66	

	성명	이정순
	나이	56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장년2부 교사
번호	67	

	성명	최길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68	

	성명	이희자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새가족위 교사
번호	69	

	성명	김봉억
	나이	6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70	

이 명단은 당회의 후보자 추천 득표순입니다.

◆ 교사통신 / 유아부 ◆

나는 텀탱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김 국 자
(집사, 유아부 교사)

"나는 텀탱님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머나 그랬어? 나도 경관이 아주 많이 보고 싶었어" 하면서 안고 뽀뽀하고 고사리손을 내 손안에 넣고 꼬옥 쥐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귀여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천사와 같은 어린 영혼을 한 주일 동안 지켜 주시다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집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 얼굴을 부비며 반가워 한다.

이른 아침부터 애기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리고 깨워서 씻기고 새옷 입히고 챙겨서 올려면 얼마나 바쁠까? 엄마도 치장해야지.....

또 어떤 엄마는 형과 아우 또 오빠와 여동생을 업고 나오는 엄마도 계신다. 재산보다 더 귀중한 믿음을 심어주려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 믿음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마음속에서 샘솟는다.

전도사님께서 성경말씀을 동화이야기처럼 해주시니까 또 그림으로도 보여 주셔서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는지 학부 모님들도 어린친구들도 교사님들도 많은 은혜가 된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린 친구들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 천태만상으로 시시각각으로 생긴 모습들, 하나님은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어린 친구들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은 추복받은 가정이구나 얼마나 부러운지 "감히 저같은 것을 엄두도 못내었던 일인데 성령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했어요. 물론 전도사님의 권유가 계셨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도 주님이 호조되게 하시고, 말씀이 가혼되는 자손들에게 믿음 물려주는 것 소원하오니 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온다.

말도 서툰 애기가 이젠 좀 의젓해졌다. 봄보다 여름엔 조금 더 자라고 여름보다 가을엔 더 자랐고 또 겨울엔 더 자라서 말도 똑똑하게 잘한다. 아주 예쁘게 서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한다. 일부 성가대 할려고 일찍 온다고 아침 여덟시 조금 넘으면 벌써 와 있다.

그러면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얼굴도 만지며 서로 반가워 하며 같이 무용도 하고 어린이 찬송가도 부르고 뛰어 놀기도 한다. 토요일 아침에 전화로 심방하면 제각기 애기들이 많다.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받고 가르치면서 은혜 받는다.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요. 저같은 것을 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 칼럼 / 역삼동에서 ▶

해외 입양자를 우리 마음에

장 우 천

(목사, 국제교구, 성경연구원 지도)

우리 충청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이나, 배경도 다양하다. 많은 교인들의 군중 속에 파묻혀 다른 사람들의 독특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의 음성이 세미하다 하여 흘러서는 안될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랑부와 에바다부의 형제자매들이 그렇고, 지금 이야기하려는 해외 입양자의 문제가 그렇다. 해외 입양자의 문제는 가설적이거나 먼곳의 이야기가 아니다. 필자는 우리 교회를 찾아온 세 명의 해외 입양자들을 만났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다.

현재 해외 입양되어 간 한국 아동 수는 13만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들은 해외에서 성장하면서 건강, 영양, 생활조건, 교육면 등에 있어서 좋은 성장을 하였다고 볼수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내적인 고민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우선 심리적인 갈등, 인종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자신의 근본 뿌리에 대한 고민을 겪어 왔다. 이들에 대하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선은 그들의 부모들이 그럴 것이고,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이, 한국 정부가 그러한 죄송한 마음과 책임을 느껴야 한다.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외국의 사람들의 힘을 통하여 그들을 양육하게 하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들은 우리들과 같은 피와 살을 나누는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해외 입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새로이 생기면서 해외 입양을 폐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일방적인 폐지만이 능사는 아니며 적절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해외 입양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해외 입양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일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어려서 한국을 떠났지만 그들의 피부색을 통하여 그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되어 있으며 그들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 자신의 부모에 대한 궁금증 등이 초기의 단순한 원망에서 지나서 연민과 그리움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성년이 되어 반드시 한국을 찾고 싶어 한다.

우리들은 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무관심하게 지나쳐 볼 것인가? 과거의 일을 잊는다고 일이 끝날 것인가? 과거의 아팠던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라도 한국을 찾고 싶어 하는 이들을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가 양육하지 못하고 외국 부모에게 맡겨 자라게 한 일에 대한 보상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전심으로 맞이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요,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오랫동안 맺었던 역사의 매듭을 푸는 참다운 회년의 기쁨을 온 민족이 누리도록 하자.

우리가 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에 맞이하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부터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 우리 부서는 지금... / 탁아부 □

아기를 가지신 성도 여러분, 아이를 꼭 탁아부에 맡기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더욱 큰 은혜에 동참하세요

저희들과 같이 탁아부에서 봉사하실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도
본당 지하 베들레헬홀 탁아부실을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제가 탁아부를 알게 된 것은 팔년전 일입니다. 어린 딸(10개월)을 탁아부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칭얼거리는 아이를 자주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예배에 지장을 주게 되어 신경이 곤두서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어린 딸은 탁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와 남편은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있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딸을 탁아부에 1시간 맡기면서도 비록 엄마품은 아니지만 저보다도 더 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맡기는 것으로 믿었기에 감사함으로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영아부로 올라가면서 교회와 탁아부에 감사하기도 하고 탁아부 전도사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탁아부 교사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탁아부에서 봉사하면서 지난날 제가 받았던 소명의 확신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탁아부에서 하는 일은 주일 대예배를 돕는 일입니다. 주간충현 260호(94년 4월 10일자)에 자세히 소개되었듯이 탁아부는 부모님이 예배드리는 동안 아이

를 맡아서 돌보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번째 트레이드 마크는 주일 성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성도의 삶 자체가 곧 예배의 연속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아부에서는 비록 아이들이 각 교회학교(영아~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번 더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그리고 탁아부에서는 어린이들의 공과공부가 없는 대신, 교사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답게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아이들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간혹 탁아부에 맡겨진지 얼마 안되어서 엄마를 찾고 보려는 아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세 주를 넘기지 않아 이내 정이 들고 밝고 건강하게 웃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마음엔 감사가 넘칩니다.

아기를 가지신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 드리 기위해서는 내 아이 하나쯤이야 하지 마시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탁아부는 주일 대예배 2부에서 4부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충분히 봉사할 수 있고 소속된 부서에서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130여명의 교사들이 정성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 앞마당에서 맘들게 하지 마시고 주저 말고 탁아부로 보내주세요.

탁아부가 생기기 전, 어떤 날은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은 대예배를 드리고 저와 딸은 영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집으로 올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일주일 내내 뭉가 허전하고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의 영혼이 말씀위에 바로 서야 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음을 그때 알았다면 아이를 핑계로 주일 대예배를 대충 때워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을텐데 하고 후회를 하며, 이제 탁아부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아기 엄마들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는 주제성구 아래 "사랑받는 어린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어린 왕자와 공주들이 사랑을 받고 자라나 그들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 저희 탁아부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작은 정감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아기를 가지신 성도 여러분, 꼭 아이를 탁아부에 맡기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더욱 큰 은혜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탁아부에서 봉사하실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도 본당 지하 베들레헬홀 탁아부실을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명 숙 (집사, 탁아부 교사)



토·막·소·식

◆ 영아부는 3월 19일 학부모초청 좌담회를 1부 예배후에 갖는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3월 26일 성경이야기 대회를 엄마와 영아들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 유아부는 3월 26일 반별 주기도문 외우기 행사로 모인다. 기도하면서 엄마와 유아들이 다 외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 유치부는 19일 사도신경 외우기, 26일 십계명 외우기 대회를 연다.

◆ 탁아부에서는 늘어나는 탁아들의 숫자에 따라 탁아부에서 봉사할 임시교사를 모집한다. 55세 이하의 아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교사가 될 수 있다. 특히 아바를 찾는 아기들을 위해 남교사와 울동, 찬양, 놀이를 지도할 청년 교사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 대학부는 3월 11일~3월 25일까지 건국대, 숭실대, 연세대, 한양대를 중심으로 한 캠퍼스 전도를 나간다. 각 대학별 팀과 익투스, 대학부 내의 각 선교단이 연합하여 함께 한다. 이를 통해 전도된 영혼들과 함께 26일(주일) 갈릴리홀에서 총전도집회로 모인다.

◆ 새가정부는 3월 19일(주일) 11시 교육관 201호(새가정부실)에서 정광욱 목사(청년1부 지도)의 특강으로 모인다.

◆ 새가족위원회는 오늘 십계명외우기 대회를 연다.

◆ 소망부는 찬송가부르기대회를 3월 19일(주일)에 연다. 지정곡은 219, 257, 433장 중 한곡만 부른다.

◆ 장년1부는 5월중 마태복음 5장 전장을 암송하기로 하고 기도로 준비중이다.

◆ 장년3부는 3월 26일(주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연다. 곡은 507장.

◆ 제4교구는 오늘 교구모임시간에 지역별 찬양대회를 연다. 장소는 교 307호.

결혼생활은 예비부에서 시작하십시오

늘 신선하고 새로운 분위기가 창출되는 곳

예비신랑, 신부들이 모여 결혼과 가정에 관한 것을 배워
매주 오전 11시, 교육관 208호실에서 모여

금년들어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파문을 일으키는 부서가 있다. 늘 모일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추가되고 생기고 역동감이 있는 부서로 피교육자가 어른이면서도 마치 어린이와 같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인 부서-곧 예비부(예비신랑신부 교육부/부장 박인세 장로, 지도 장봉생 목사)이다.

예비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혼시작부터 잘 깨닫게 하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개교한 교회학교이다.

예비부는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예비신랑, 신부가 대상이다. 특히 본 교회 교우로서 결혼예정인 사람은 반드시 본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 교회 목사의 주례로 결혼하는 경우는 사무국에 결혼신청서를 받을 때 예비부 등록신청을 같이 받게 되어 있다.

교육과정은 8주를 한 학기로 하여 순환하고 있다. 매주 오전 11시에 교육관 208호실에서 모여 1교시는 각 분야 전문 강사의 강의, 2교시는 그룹으로 모여 성경에 나오는 부부에 관한 인물공부를 교사(부부)와 함께 하고 있다.

주 별	강의제목	강 사
1	성경적 결혼관	장봉생 목사(예신부 지도)
2	부부생활의 중요성	신선길 변호사
3	결혼준비와 혼수문화	전성자 소비자 교육원장
4	배우자 가족과 바른관계 맺기	이경현 권사(예신부 부감)
5	부부생활의 갈등해소	이진숙 사모(소설가)
6	결혼생활의 스트레스	박종학 신경정신과 전문의
7	부부의 건강생활	윤영탁 목사(합동신학교 교장)
8	자녀 계획 및 태아교육	정지자 사모(전 충현유치원 원감)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두번째 학기로 접어들었는데 아무때나 등록해도 상관없다. 8주 코스만 마치면 되기 때문이다. 8주 코스를 마치면 새가정부로 진급하게 된다.

첫번째 수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생각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막연하게 세상적인 개념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결혼·가정·부부란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다고 느꼈습니다.

— 앞으로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결혼생활이 기대됩니다.

— 성경적 결혼관, 가정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비부 목사님과 교사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 결혼하여 생활할 때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3/13(월) 충현기도원 여교역자 및 사모 부흥회 개강예배 설교
3/15(수) 육군사관학교 졸업예배 설교
· 신성종 목사: 3/13(월) 목회자세미나 강의
3/13(월) 충신 이사회
3/14(화) 숭의교회 교회성장세미나 강의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 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충만하게 하시며, 생활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3.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안수집사와 권사에 피택되게 하소서.
4. 하나님이 축복하시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의 유령순방으로 인한 열매의 충만함을 주시며, 전국적인 가뭄을 해결시켜 주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허락하소서.
5.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생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6.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접촉하여 열매맺게 하시고, 강남구내 교구 집중전도를 축복하소서.

충현상조회에서 알려 드리는 말씀

충현상조회에서는 상(喪)을 당한 가정
충현동산을 이용할 경우에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필요한 모든 성도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상조회의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이 난을 마련하였다.

1. 충현동산 묘소대금

1) 묘1기 매장할 때	1,200,000
10년 관리비	300,000
계	1,500,000
- 2) 기존묘소에 합장할 때

가. 10년 관리비 납부한 묘소는	1,200,000
10년 관리비	150,000
계	1,350,000
나. 10년 관리비 미납 묘소는	1,200,000
10년 관리비	450,000
계	1,650,000
- 다. 제1동산에서 충현동산으로 이장할 때

10년 관리비	800,000
10년 관리비	300,000
계	1,100,000

□ 충현동산에 매장되어 있는 묘소에는 제한없이 합장이 허락된다.

2. 매장신고
 - 1) 구비서류
① 매장신고서,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묘지사용 승락서, ⑤ 폐문
 - 2) 상가에서는 교역자가 전달한 소기양식에 의거 상가서류를 충현동산 관리소 총무에게 장례식 당일 하관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충현동산 식당운영
 - 1) 당 식당에서 밥, 국, 김치를 준비한다(인당 3,000원)
 - 2) 기타는 상가의 형편에 의해 준비한다.
 - 3) 식사를 위한 모든 기물은 식당에 준비되어 있다.
4. 조의금 전달
 - 1) 관보는 교역자님이 전달한다.
 - 2) 조의금 5만원은 교구장이나 지역장에 전달한다.
 - 3) 본 교회 성도의 직계로 별세자가 타교회 교인일 경우는 교역자님이 조의금을 전달한다.
 - 4) 소망부 학생이 별세했을 때는 소망부 부장에 조의금을 전달한다.
5. 상조회 및 충현동산(연락처)
 - 상조회 사무실: 552-7750
 - 상조회장: 김여순 장로(전화 483-7536(야간), 호출 012-242-9627)
 - 총무: 최명환 장로(전화 427-1980)
 - 서기: 정정주 장로(전화 552-8200, 교 285(인쇄실))
 - 충현동산: 이범무 집사(전화 0347-64-9617)
6. 교구찬양대 끼운

교구찬양대 끼운은 상조회에서 관리한다. 상을 당한 교구는 상조회에서 끼운을 인수하여 사용 후 반납한다.